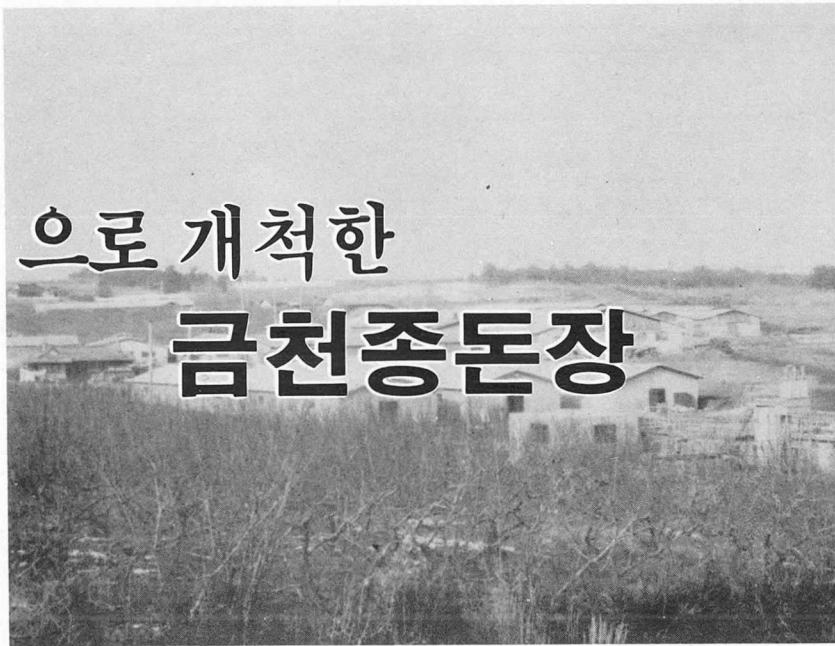


# 흙으로 개척한 금천종돈장



취재 : 곽 삼 섭 기자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 주위와 조화를 이뤄가면서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을 보게되면 자못 대견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날은 즐거운 하루가 펼쳐진다. 이렇게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삶속에서 문득 그런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면 한여름의 가뭄속에 한 줄기 소낙비를 만나듯 상쾌한 기분이고,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웬만하면 모두들 떠나려 하는 농촌에 뛰어들어 소박한 꿈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있는 금천종돈장 박상옥 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을 수가 있다.

「종돈장을 운영하려면 우선 돼지를 사랑하고 아낄줄 아는 마음가짐과 항상 종돈개량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정성이 최우선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뚜렷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종돈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서, 금천종돈장 박상옥 사장은 종돈장 경영이 무엇보다도 자신을 개척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천종돈장은 광주에서 버스로 약 40분 거리대인 전남 나주군 금천면 동악리 355-6번지(전화: (0613)3-7342)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을 가다보면 도로 주변에 광

활한 논과 밭이 펼쳐져 있을 뿐 아니라, 높지 않은 야산에 맛으로 유명한 나주배 생산단지 답게 배나무 과수원을 많이 볼 수 있다.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이 많이 파괴되고 있지만, 박사장은 그래도 흙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었다. '78년 군제대후 곧바로 농촌에 투신한 그는 그때 나이 25살이었다. 종돈개량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더러 특별히 종돈장 운영을 위해 경험해 본 일이 없었다는 박사장이 양돈업을 해온지는 12년째가 된다.

어느덧 금천종돈장은 3천여평의 대지위에 1천평(신축돈사 포함) 규모의 건물이 질서정연하게 자리잡

고 있다. 종돈장과 근접한 1만여평의 과수원에는 25년생짜리 배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과수원 소득만도 연 3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 타종돈장과 경쟁관계에 있어 종돈개량 의지로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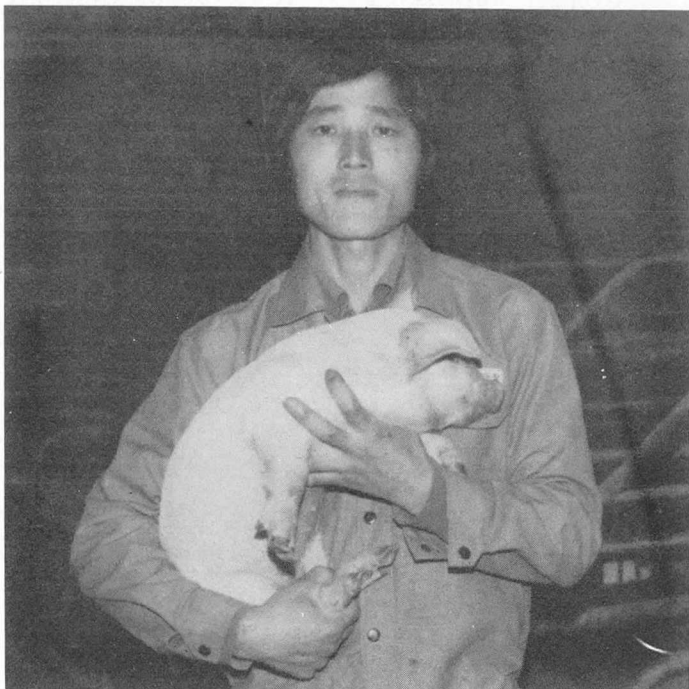
현재 금천종돈장은 원종돈 1백두를 비롯 모두 280두의 모돈을 사육하고 있다. 이곳은 타지역보다 양돈업에 관한 한 일반농가의 인식이 고조되어 있어 종돈개량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종돈장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금천종돈장은 더욱 더 종돈개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이지역에는 무한한 종돈시장이 펼쳐져 있으며, 같은 종돈장이라도 다른 업체와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돈개량의 진행 속도 면에서는 기대 이상의 발전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주위사람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종돈업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면서, 박사장은 「종돈장 운영을 하다 보니 종돈개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며, 앞으로 전문종돈장 육성이 그의 목표라고 피력했다.

그 한예로 금천종돈장은 '89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20두의 우수종돈을 수입해 오는 결과를 얻었다. 사료요구율 2.01, 일당증체량 1,005g, 등지방두께 1.35cm, 90kg 도달일령 115일 등 수입돈의 평균성적에

▶「미천종돈장」박사장은 사장이 돈사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 투자결과에 대한 입증이 되는 셈이다.

또 타농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에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한가지 장점으로 통한다. 그만큼 종돈업에는 많은 투자와 시간, 고도의 관리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종추진과 경영개선으로 양돈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종돈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한다. 우수종돈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양돈인으로서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박사장은 「종돈업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투자와 양돈산업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종돈개량과 더불어 영세양축농가를 위한 우수종돈 보급에만 힘쓰겠다고 말한다.

## 자체농장검정 병행 실시해 종돈개량 추진

금천종돈장은 검정소에 종돈을 출품하는 것 이외에도 본회에서 실시하는 농장검정도 실시하고 있다. 또 농장에서 생산된 종돈 전두수에 대해 자체 농장검정을 병행 실시해 종돈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장자체에서 검정성적과 외모, 혈통을 종합평가하지만,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외모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같이 종돈능력은 검정소 출품성적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캄피온돈으로 선발된 종돈은 없지만, '89년 한 해 동안 9두가 검정소에 출품하여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이 큰 활력이 되고 있다. 평균 사료요구율 2.46, 일당증체량 924g, 등지방두께 1.68cm, 선발지수 193

〈표〉 89년도 검정소 출품돈 성적 현황

품 종	사료요구율	일당증량(g)	등지방(cm)	선발지수	비 고
D	2.52	925	1.80	185	
D	2.52	938	1.71	189	
Y	2.39	870	1.70	193	
Y	2.39	941	1.30	203	
D	2.44	1,091	1.83	212	
D	2.44	984	1.77	201	
Y	2.69	843	1.70	178	
Y	2.36	747	1.47	185	
Y	2.40	980	1.82	195	
평 균	2.46	924	1.68	193	

은 작년 검정소 합격돈(612두)의 사료요구율 2.53, 일당증량 911g, 등지방두께 1.44cm, 선발지수 195보다 뒤지지 않는 성적이다.

이런 결과로 박사장은 「검정소 출품성적이 결코 타농장에 뒤지지 않는 것은 평소 철저한 자체 농장 검정을 통한 강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머지않아 챔피언돈이 탄생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금천종돈장은 농장자체에 쓸 종돈을 빼고 일반농가에 판매되는 두수는 월 평균 30~35두 정도이다. 작년과 같이 양돈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도 월 20두 정도를 판매하는 등 주로 주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라고 한다.

금천종돈장은 내적인 성장외에도 시설개선 등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한가지 분만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2개의 분만사를 같이 합사하여 새끼돼지들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했다. 분만후 15일이 경과되면 합사하는데, 이로 인하여 분만돈관리와 각 개체관리가 수월하다는 얘기이다. 특히 합사율은 0.1%에도 못미치는 등 일반

적인 사육방법보다 이익이 많다고 한다.

또 종돈으로 선발되지 않은 비육돈장에 농장자체에서 고안한 자유급이기를 설치해 놓고 있다. 1개의 급이기통에 3개의 뚜껑을 만들어 돼지가 뚜껑을 열고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각 개체마다 급이통 뚜껑을 열고 혀로 천정을 두드리면 사료가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다. 이 시설로 인하여 사료허실 방지는 물론 외부 찌꺼기 유입 등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급이기는 10마리 사육하는 1돈방당 1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농장자체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1개당 6만원(뚜껑 3개 급이통) 소요되는 비용이다.

### 종돈개량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해

박사장은 종돈개량에 대한 집념을 평가할 때 꼭 우리나라 종돈개량을 위해 무언가 이를 것만 같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노력하는 댓가만큼은 꼭 거두어지리라 믿는다.

박사장은 「수입개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돈개량은 물론 선진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수급조절도 중요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농촌을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젊은이가 농촌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지금은 돼지가격이 좋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불황과의 싸움속에서 살았다면서, 이제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싸워야 하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짓누른다는 박사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양돈업을 하기가 힘들어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털어 놓는다.

박사장은 또, 종돈장 계획에 대해 「규모를 더 확장할 생각은 없고, 자금사정이 허락하면 농장의 기계화 시설에 투자를 해 인력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소박한 꿈을 밝혔다.

한발 한발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금천종돈장 박상욱 사장. 그는 비록 종돈개량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그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종돈개량사에 금천종돈장의 이름도 꼭 한 페이지 장식할 것으로 기대한다. **■**